

버닝썬·장자연... 시사프로, 연예계 사건 주목

사회 이슈로 확대되자 일제히 보도경쟁 나서 스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져야

버닝썬 게이트부터 정준영 파문, 고 (故) 장자연 사건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에 뉴스는 물론 시사 프로그램들까지 일제히 이 사건들을 주목하며 보도 경쟁에 나섰다.

뉴스 부문에서는 지난 11일 정준영이 전 박병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고 보도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SBS TV가 먼저 치고 나왔다.

SBS는 후속 보도도 쏟아내며, MBC TV 역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지난 20일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KBS 1TV도 같은 날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보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씨자 출연해 "장자연 사건은 성 상남이 아닌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증언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장자연 사건은 같은 채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J)'에서도 지난 17일 다뤘다.

MBC는 지난해 7월 '방송사 정상화 국면' 속 'PD수첩'을 통해 장자연 사건을 2부에 걸쳐 일찌감치 다뤘으며, 'PD수첩' 또는 자사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후속 보도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연예계 이슈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돼 보도 경쟁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연예계 이슈들은 연예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 경찰 유착, 성인지 감수성 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돼 보도 경쟁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연예계 이슈들은 연예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 경찰 유착, 성인지 감수성 등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돼 보도 경쟁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반면, 집중적인 보도와 별개로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검증 없이 올려놓는데 일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송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사들이 지금까지 승리나 정준영 등을 이용해 시청률을 견인하고 그들의 성공에 일조했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한마디도 않고 보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공정적인 면만 연출한 데 대한 사과나 설명, 책임의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MBC '뉴스데스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KBS '오늘밤 김제동'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시청률 22.6%로 출발

'자백' 4.6%·'킬잇' 1.1%

KBS 2TV 새 주말극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 시청률 50%에 육박했던 '하나뿐인 내편'의 기를 이어받아 20%대 중반 시청률로 출발했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 방송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첫 회 시청률은 22.6%~26.6%로 집계됐다. 전작 '하나뿐인 내편' 1회 성적은 21.2%였다.

첫 방송에서는 워킹맘 강미선(유선 분)을 돕는 친정엄마 박선자(김혜수)와 며느리를 돕기엔커녕 괴롭히는 시어머니 하미옥(박정수)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선자의 둘째 딸 강미리(김소연)와 한태주(홍중현)의 강렬한 첫 만남도 있었다.

첫 방송 후에는 김혜수, 박정수, 최명길 등 믿고 보는 베테랑들과 유선, 김소연 등 개성 배우들의 조합이 좋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특히 김혜수는 초반부터 현실감 넘치는 연기로 기존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친정엄마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을 들었다.

케이블에서는 tvN '자백'과 OCN '킬잇', 두 작품이 나란히 출발했다. 시청률은 각각 4.6%, 1.1%(이하 비지상과 유료)



KBS 2TV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구)였다.

'자백'에서는 형사와 변호사로 마주한 기춘호(유재명)와 최도현(이준호)이 5년 전과 현재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에 각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킬잇'에는 김수현(장기용)이 살인정부업자로 마피아 두목인 로빈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형사 도현진(나루)과 수사으로서 처음 만나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SBS 금토극 '열혈사제'는 14.8%~17.9%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에 부모 된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상진(39)-김소영(32) 부부(사진)가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얻게 됐다.

김소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영상 일부를 올렸다. 해당 영상 속 부부는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으나 김소영이 고열 등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일정을 중단했다. 그리고 병원을 찾은 결과 김소영이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은 "이렇게 아프고 이상한 느낌은 처음이었지만 임신이었다"고 밝혔고, 오상진은 "행복하다. 잘 삼시다"라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태명은 '설록'으로 지었다. /연합뉴스



오상진과 김소영은 MBC 아나운서 시절 만나 2017년 4월 결혼했다. 프리랜서를 선언한 오상진의 뒤를 이어 김소영도 MBC를 떠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아이템(재)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25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열린채널 광주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아이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3.1 운동 100주년 특별기획 남도 해방을 외치다 55 열린광안 특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MBC PICK X 마리텔 V2 마리보기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특수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25 빠샤 매거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00 윈속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교황건문록 남도에 살았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섹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이은숙>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설탕의 제국 1~2부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미역국과 묵살 생강구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남쪽나라 오감기행 1부 만지다, 봄>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7:00 레이디버그	13:00 다큐 오늘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탐원 구조대
09:15 뽀뽀뽀 뽀로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9:30 원더볼즈	16:15 짝과 팡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19일 辛酉)	
子	36년생 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48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60년생 신방성이 총분하니 참고해도 되는 위상이니라. 72년생 교체 해 주어 아난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84년생 밤심한다면 낙오할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82	午	42년생 경연에 비취웠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54년생 표현화 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보인다. 66년생 실득력 있는 실행이 뒤따라 줘야 한다. 78년생 원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하라. 90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유연하게 돌파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12
丑	37년생 한 마디로 기가 막히리라. 49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속출하리라. 61년생 속 시원한 결말은 없고 자꾸 연기 되리라. 73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니라. 85년생 너무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1, 59	未	43년생 긴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55년생 맹점이 보완되었을 때 성사 된다는 것을 알자. 67년생 절대적이 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79년생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에 별점을 때 오히려 압축 효과가 더 커진다. 91년생 가벼운 조치가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3, 75
寅	38년생 같은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50년생 기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라. 62년생 불잡아 두는 것이 득이 되리라. 74년생 알뜰한 발상이 운택한 생활로 이끌게 됨을 명심하라. 86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5, 73	申	44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56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68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80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92년생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67, 56
卯	39년생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사가 순행 하리라. 51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63년생 뒤탈은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75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87년생 정지해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96, 06	酉	45년생 내리막길로 향하리라. 57년생 초심으로 일관한다면 기필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69년생 세치의 혀를 잘 사용하라. 81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93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행운의 숫자 : 32, 92
辰	40년생 외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52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나라. 64년생 아무렇게 다잡아야 할 시기이다. 76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한다. 88년생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판세라서 애매하리라. 행운의 숫자 : 57, 95	戌	34년생 관심을 표하라. 46년생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나 서지 말라. 58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70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82년생 오만하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1, 18
巳	41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53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65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 하라. 77년생 저하 될 수밖에 없다. 89년생 역행하는 셈 치면 속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90	亥	35년생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옳다. 47년생 직접 만나야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59년생 적극 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71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리라. 83년생 갖을 것이니 충분히 대비해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18, 51